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6/12/13

2016년 올해를 빛낸 영화배우

한국갤럽은 2005년부터 매년 말 그해를 빛낸 각 분야 ‘올해의 인물’을 발표해 왔는데요.
올해는 이를 위해 11월 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면접조사했습니다.
지난주 코미디언/개그맨, 어제 스포츠선수에 이어 오늘은 영화배우, 이후 텔런트,
대중가수/인기가요 등 분야별 ‘2016년을 빛낸 인물’을 차례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조사 개요

1. 조사기간: 2016년 11월 4~25일(3주간)
2. 표본추출: 2단계 층화 집락 지역 무작위 추출-표본 지점 내 성/연령별 할당
→ (참고) [한국갤럽 옴니버스 조사 표본설계 보고서](#)
3. 응답방식: 면접조사원 인터뷰
4. 조사대상: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
5. 표본오차: $\pm 2.4\%$ 포인트(95% 신뢰수준)
6. 응답률: 37% (총 접촉 4,613명 중 1,700명 응답 완료)
7.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주요 결과

- 올해를 빛낸 영화배우 1 위 <검사외전> <곡성> <아수라> 황정민 - 2 위 <밀정> 송강호
- 최근 몇 년간 남배우 상위권 절대다수 현상 지속
- 황정민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마블리’ 마동석은 10 대 호응 높아

올해를 빛낸 영화배우 1 위 <검사외전> <곡성> <아수라> 황정민 - 2 위 <밀정> 송강호

한국갤럽이 2016년 11월 4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전국(제주 제외)의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올 한 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영화배우를 두 명까지 묻은 결과(자유응답), **황정민**이 21.2%의 지지를 얻어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는 올해 세 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가장 먼저 개봉한 <검사외전>에서는 검사 ‘변재욱’, <곡성>에서는 무당 ‘일광’, <아수라>에서는 악덕시장 ‘박성배’로 변신해 강렬한 연기를 펼쳤다. 작년에는 <국제시장> <베테랑>으로 각각 천만 이상 관객을 모으며 3위에 오른 바 있다.

2위는 <밀정>의 **송강호**(18.4%)다. 그는 2014년 故 노무현 대통령의 일화를 다룬 영화 <변호인>에서 ‘송우석’ 역으로, 2015년 <사도>의 ‘영조’로, 올해 <밀정>에서는 조선인 일본 경찰이면서 한편으로는 의열단을 돕는 복합적 인물 ‘이정출’로 관객들을 만났다. 매해 개봉작이 각각 한 편뿐임에도 3년 연속 2위를 수성해 그를 향한 팬들의 두터운 신뢰가 다시금 입증됐다. 2008년에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으로, 2013년에는 <설국열차> <관상>으로 ‘올해의 영화배우’ 1위에 올랐었다.

3위는 **공유**(12.7%)로, 올해 여름 목숨 건 부상에 연기를 펼친 <부산행>으로 생애 최초 ‘천만 배우’가 됐고 이어 선보인 <밀정>에서는 의열단 리더 ‘김우진’으로 열연했다. 올해 2월 개봉작 멜로 영화 <남과 여>에서는 전도연과 함께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도가니>에 출연했던 2011년 ‘올해의 영화배우’ 5위에 이름 올린 적 있다.

4위는 **하정우**(11.4%)다. 상반기에는 <아가씨>의 사기꾼 백작으로 분했고, 8월에는 재난 영화 <터널>에서 평범한 가장이자 자동차 세일즈맨 ‘정수’ 역을 맡아 ‘1인극’ 연기로 찬사를 받았다. 그는 2013년 흥행작 <더 테러 라이브>에서도 거의 모든 장면에 등장해 큰 액션 없이도 긴장감 넘치는 원맨쇼를 펼쳐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 2012년부터 5년 연속 ‘올해의 영화배우’ 5위권에 들어 ‘믿고 보는’ 배우로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5위는 생애 첫 원톱 주연작 <럭키>로 흥행에 성공한 **유해진**(10.8%)이다. 그는 <럭키>에서 46세의 냉철한 킬러 ‘형욱’과 32세의 단역 배우 ‘재성’ 등 상반된 두 캐릭터를 오가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데뷔 20년차인 그는 지금까지 조연으로 출연한 영화들에서 꾸준히 존재감을 키워왔고, 작년부터는 tvN 예능 <삼시세끼 어촌편>을 통해 따뜻하고 수더분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는 등 친근함을 더하기도 했다. 작년 10위에서 5단계 뛰어올랐다.

6위는 최근 몇 년간 국내보다는 할리우드 행보로 더 주목 받고 있는 **이병헌**(9.6%)이다. 올해 할리우드 개봉작은 <미스컨덕트>와 <매그니피센트7>이며, 국내작 <밀정>에 의열단장 ‘정채산’ 역으로 특별출연했다.

7위는 <인천상륙작전>의 **이정재**(6.3%), 8위는 <아수라>의 **정우성**(6.2%), 9위는 **전지현**(5.4%), 그리고 10위는 <굿바이 싱글>과 <부산행>의 **마동석**(5.0%)이다.

그 외 송중기(4.2%), 유아인(3.8%), 최민식(3.7%), 김혜수(3.5%), 강동원·설경구(이상 3.1%), 조진웅(2.9%), 손예진(2.5%), 오달수(1.7%), 곽도원·안성기·라미란(이상 1.3%) 등이 20위권에 들었다.

▶ 2016년을 빛낸 영화배우 - 상위 10위 (2명까지 자유응답)

순위	이름	%	올해 대표작
1위	황정민	21.2	<김사외전> <곡성> <아수라>
2위	송강호	18.4	<밀정>
3위	공 유	12.7	<남과 여> <부산행> <밀정>
4위	하정우	11.4	<아가씨> <터널>
5위	유해진	10.8	<럭키>
6위	이병헌	9.6	<미스컨덕트> <밀정> <매그니피센트7>
7위	이정재	6.3	<인천상륙작전>
8위	정우성	6.2	<아수라>
9위	전지현	5.4	2015 <암살>
10위	마동석	5.0	<굿바이 싱글> <부산행>

질문) 2016년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영화배우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녀 구분 없이 두 명만 말씀해 주십시오. (2명까지 자유응답)

*한국갤럽 2016년 11월 4~25일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00명 면접조사 www.gallup.co.kr

최근 몇 년간 남배우 상위권 절대다수 현상 지속

2016년을 빛낸 영화배우 10위권에는 <밀정>(누적 관객 750만 명, 영화진흥위원회 박스오피스 기준) 출연 배우가 세 명, <부산행>(1,157만 명)과 <아수라>(259만 명) 출연 배우가 각각 두 명씩 포함됐다.

최근 몇 년간 남배우들이 ‘올해의 영화배우’ 상위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07년에는 전도연이 49.7%로 1위에 올랐고 2008년에는 손예진(2위), 김혜수(3위), 전도연(4위)이 상위권에서 각축을 벌였다.

그러나 이후 여배우 순위 최고 기록은 2009년 하지원(4위), 2010년 김혜수(7위), 2011년 김하늘(4위), 2012년 김혜수(3위), 2013년 김혜수(7위) 등에 그쳤고 2014년에는 10위권에 여배우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작년과 올해는 전지현이 각각 4위, 9위를 기록했으나 올해 개봉작은 없어 <암살>의 여운에 드라마 출연 영향이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

▶ 올해를 빛낸 영화배우 - 최근 10년간 추이 (% , 2명까지 자유응답)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위	전도연(49.7)	송강호(13.1)	이병헌(20.1)	원 빈(30.7)	원 빈(11.3)
2위	송강호(16.5)	손예진(11.3)	장동건(17.9)	장동건(14.4)	박해일 (9.5)
3위	배용준 (6.4)	김혜수 (7.4)	설경구(17.5)	강동원(11.6)	장동건 (8.8)
4위	안성기 (6.4)	전도연 (7.3)	하지원(14.3)	이병헌 (6.4)	김하늘 (8.2)
5위	설경구 (5.0)	장동건 (7.3)	정지훈 (8.3)	송강호 (5.6)	공 유 (5.8)
순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위	이병헌(37.6)	송강호(22.5)	최민식(42.3)	유아인(26.9)	황정민(21.2)
2위	송중기(15.0)	하정우(18.9)	송강호(22.2)	송강호(20.3)	송강호(18.4)
3위	김혜수 (7.6)	이병헌(18.0)	류승룡(10.5)	황정민(16.1)	공 유(12.7)
4위	장동건 (7.4)	류승룡(10.1)	하정우 (9.0)	전지현(14.2)	하정우(11.4)
5위	하정우 (6.4)	설경구 (7.4)	이병헌 (4.5)	하정우(11.8)	유해진(10.8)

*한국갤럽 매년 말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00명 면접조사 www.gallup.co.kr

황정민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마블리’ 마동석은 10대 호응 높아

50대 이상은 송강호를, 10대 여성은 공유를 첫손 꼽았다.

황정민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마블리’ 마동석은 상대적으로 10대에서 호응이 높았다.

▶ 2016년을 빛낸 영화배우 - 성/연령별 (% , 상위 10위, 2명까지 자유응답)

	표본수 (명)	(1위) 황정민	(2위) 송강호	(3위) 공유	(4위) 하정우	(5위) 유해진	(6위) 이병헌	(7위) 이정재	(8위) 정우성	(9위) 전지현	(10위) 마동석
전체	1,700	21.2	18.4	12.7	11.4	10.8	9.6	6.3	6.2	5.4	5.0
성 남	846	24	20	11	12	11	10	6	6	5	5
별 여	854	19	17	14	11	11	9	6	7	6	5
연 13~18세	135	22	8	17	13	11	4	5	5	7	10
령 19~29세	276	21	13	15	12	13	8	9	9	6	5
별 30대	286	20	19	16	15	13	14	5	8	5	6
40대	331	27	16	15	12	12	11	6	6	7	5
50대	311	20	24	11	10	7	10	8	4	6	4
60대이상	362	17	22	7	7	9	8	5	4	3	3
남성 13~18세	70	27	9	12	15	16	4	5	4	6	8
19~29세	145	24	14	12	15	13	11	9	8	4	4
30대	146	26	20	13	16	13	16	6	7	5	6
40대	168	29	17	13	13	10	12	5	4	6	5
50대	157	22	29	8	10	6	9	8	5	6	5
60대이상	160	16	24	8	7	8	7	5	6	4	4
여성 13~18세	64	18	8	23	11	6	4	5	7	7	13
19~29세	131	18	11	17	10	12	6	9	11	8	7
30대	140	13	18	19	15	12	12	3	9	5	7
40대	163	26	16	17	12	14	9	8	9	7	4
50대	154	18	20	14	11	9	10	9	3	6	4
60대이상	202	18	21	5	7	10	9	4	3	3	2

질문) 2016년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영화배우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녀 구분 없이 두 명만 말씀해 주십시오. (2명까지 자유응답)

*한국갤럽 2016년 11월 4~25일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00명 면접조사 www.gallup.co.kr